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국회 내빈으로 2020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한 야킵 이슈트반 국회부의장 겸 헝가리 농업협회장을 접견했다.

입력 2019.02.05



2020년 2월 5일 (화요일) 10.00 시에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국회의사당 4층에 접견실에서 국회 내빈으로 2020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태국 국회와 헝가리 국회 관계 발전을 위해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야킵 아슈트반 (István JAKAB) 헝가리 국회부의장 겸 헝가리 농업협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의 예방을 받았다. 국회 의장은 태국 국회와 헝가리 국회 사이의 긴밀한 관계 촉진을 위한 헝가리 국회 부의장의 태국 국회 방문을 환영했다. 국회의장은 헝가리의 농업문제 해결에 대한 성공적인 활동에 감명 받았다고 밝혔고 헝가리 국회의사당 건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교환했다. 건설 중인 태국 새 국회의사당처럼 강가에 위치한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매년 7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헝가리간 여러 분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도 가졌다. 특히 무역과 투자 잠재력이 높은 여러 분야의 협력은 미래 양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우선 농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양국이 양해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과 다자협력이 이루지고 양국 국회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태국-헝가리 의원친선협회도 설립되었다.

국회의장은 이번 태국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양국 국민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 통하여 연임하고 있는 라슬로 쾨비르(László Kövér) 헝가리 국회의장에게 안부의 말을 전했다. 야킵 아슈트반 부의장은 태국 방문을 맞아 태국 국민의 따뜻한 환영에 깊은 감사를 나타냈고 앞으로 양국간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께 헝가리 공식방문을 요청했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국제의회단체사무국

번역: 쏘자이 통륜,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